

2014

즐거운 새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새로운 상상이 스미다. 봄비

27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가 뭔가요??



동국대학교 학생회는 넓게 동국대 학생사회의 준말입니다. 학생회의 구성원은 동국대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념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총여학생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대학문화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술자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억지로 술을 마시고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엠티에 가서 선배에게 당한 성폭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국대는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요? 과연 성소수자 학생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총여학생회는 생물학적인 여성들의 권리신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우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총여학생회의 역할입니다. 그 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관심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총여학생회와 함께해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3.8 여성의 날

3.8 여성의 날 축제를 함께할
새내기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여성주의 세미나

매주 1회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서로의 대학생활을 나눕니다.

총여학생회
집행부 대모집!!
★학번·나이·국적
·학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환영★

총여학생회 상담소

해결이 필요해! 공감에 필요해!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당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법과 치료 방법을 고민합니다.

<문의> 총여학생회장 최은미 ☎ 010 9002 4187
 부총여학생회장 이수지 ☎ 010 2799 2368

대학생활에서 살아남기

2014년 새내기들을 위한 안내서

불편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예요!

대학이라는 공간의 문화가 너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소개하는 FM에서부터 지쳐도 계속되는 술자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등.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학 내 조성되어 있는 문화는 대부분 남성이나 이성애자 혹은 비장애인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성이 아닌, 이성애자가 아닌,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이라는 곳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소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불편함은 당연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함에서 공동체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면 그 불편함은 공동체에 아직 건강함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새내기라고 해서 선배가 따라준 술을 다 마셔야 하나요? 여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쁘고 조신하고 누군가의 '연애상대'가 될 만큼의 매력을 가져야 하나요? 남학생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크고 남자 선배들 말에 더 고분고분 따라야 하나요?

**주어진 역할에
얽매이지 마세요.**

'새나는 ~해야지.', '여자들은, 남자애들은 ~해야지.'라는 말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성별이나 나이 또는 학번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생활 공동체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전제 없이 평등한 관계맺음과 그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새내기 생활백서

- 술자리에 원치 않는 스킨십을 은근슬쩍 시도하려는 선배에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제가 간지럼을 많이 타서요, 손만 달아도 간지럽네요." 라고 말해준다.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게임과 벌칙이 등장할 때, 무호응으로 일관하자.
- "오빠"라고 부르기 싫는데, "오빠"라고 해야 할 때, "네, 그렇게요. 선배"라고 '선배'라는 말을 강조하자.
- 끊이지 않는 연애권장에 진절머리가 날 때,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해준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냈지만
당장 이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면?
우리에게 연락해! 총여 상담소

★전화 : 최은미 ☎01090024187

이수지 ☎01027992368

★메일 : bombee2727@naver.com

★장소 :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실

2014년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자치규약 이야기

2월이 되면 학내 곳곳은 새내기를 맞이할 준비로 바쁘다. 학생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새터와 O.T를 통해 새내기와 재학생의 만남을 준비한다. 새내기들은 대학을 통해 수업에 대해서도 기대하지만 대학생활을 함께 할, 수업을 함께 들을 동기들 또는 선배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며 새터를 기다린다. 재학들도 이런 새내기들을 생각하며 새터를 준비한다. 그런데 이 때 새내기와 재학생들이 서로를 처음으로 만나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그것이다.

왜 자치규약을 통해 반성폭력을 이야기할까?

새내기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 문화를 처음으로 접한다. 물론 새터를 통해 접하는 대학 문화가 그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부를 대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대학 문화는 언제나 일부일 뿐이며, '주류'일 뿐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처음 접하는 것은 어렵고, 대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는 대학문화, 대학 구성원들을 처음 접하는 새터에서 또한 다르지 않다.

새터에서는 친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미로, 친해지기 위해'라는 명목 아래 누군가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수많은 성폭력이 발생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동기들에게 비난 애라고 찍히진 않을까, 다들 재미있어 하는데 내가 괜히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이유들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제대로 이야기 되지 못한다.

자치규약은 문제제기다

새터에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공동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많은 폭력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았나 하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새터에서 이뤄지는 대개의 프로그램들이 특정 성/성 정체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않았는지, 관계 맺기의 중심에서 나이, 학년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를 통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욱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새터를 다시 보자

새터에서 매년 당연한 듯 계속되는 술자리 문화, 놀이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않았는지 새터의 문화를 다시 보도록 하자. 새터가 새내기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시작인 것처럼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도 동국대 성폭력 문제를 성찰하는 첫걸음이다.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통해 우리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바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동국대학교 공동체를 위한 새터 反성폭력 자치규약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에서부터 남학우들까지, 새내기부터 재학생까지 수많은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비판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자치규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한 보복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과 자치규약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여 잘못된 성의식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들을 흉내내는 경우
- 새터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 놀이 자리에서 혹은 술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4)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내규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약을 정한다. 각 학내 공동체는 그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플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새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5)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내규를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홍보물을 배포해야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가 끝날 때까지 본 규약을 소속 단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한다.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동국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학내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새터 공동체 문화 다시보기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에 대한 '감'이 어느정도 오셨나요? 반성폭력 자치 규약은 '일상'에 감이 침투해있으며, 관계 맺기의 전제가 되버린 '권력'에 의해 공동체 문화, 놀이 문화가 특정 성/성 정체성을 배제해 오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문화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FM

지금은 FM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과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FM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FM은 대학에서 대표적인 자기소개는 한 방식이 되었는데요. FM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의 군대 용어 Field

Manual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후 FM은 대학 내의 자기소개 방법으로 이야기되면서, 강한 '남성성'으로 강조되는 큰 목소리, 오버스러운 동작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FM의 목적이려면 이는 분명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FM을 통해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자신의 단체, 과거 무엇이고, 몇 학번이며, 이름이 무엇이다, 정도이지요. 또한 큰 목소리, 이와 동시에 크게 움직이는 동작, 이에 어긋나면 몇 번이고 똑같은 소개를 반복해야 하는 것은, 하는 이도 듣는 이도 그리 즐겁지만은 않게 만드는데요.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찾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M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소개하는 것,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들, 놀이들이 있을지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FM을 통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은 아닌지, 재미있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이를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보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장기 자랑

장기자랑이야말로 경험해 보지 않은 새내기들이 없을 겁니다. 새터에 오기 전부터 단체/과별 모임에서는 서로를 소개하고 친해지는 기회를 가집니다. 첫 만남이 어색하기는 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 보통 재학생들은 새내기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켜 어색한 분위기를 띄워보려 합니다. 이러한 장기자랑 문화는 새터가 갔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새내기 뽐내기'입니다. 여자 새내기들은 여성성이 강조된 여자 걸그룹 춤을 추어야 하고, 남자 새내기들은 옷을 벗거나 남성성이 강한 아이돌 그룹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때문에 새내기들은 새터에 가기 전부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대보다는 걱정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기자랑은 자신이 가진 장기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고 서로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자랑을 통해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빨리 친해지고 싶은 환경에서 우리가 만든 하나의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즐겨야 한다.'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장기자랑 문화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보다는, 끊임없이 이성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그 기쁨이 좀 더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부담없는 장기자랑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덧붙여, 새터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연이 '일탈'과 '쾌감'의 정도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 혹은 '불쾌감'을 끼치는 것에 대한 성찰 또한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문제겠지요?

술문화

새터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 문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는 게임들은 보통 어떤 형태인가요?

술을 마시기 위한 게임이 주가 아니었나요? 게임을 통해 새나기와 재학생이 바라는 것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고가는 술잔 속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 나를 소개하는 시간은 쏙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유로 많은 성적인 표현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어색한 분위기를, 누구를 대상화하며, 누구를 위해 띄우고 있나요? 특정 성이나 성 정체성이 배제되고, 대상화될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일 때, 우리는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놀음'쯤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특정 성/성 정체성을 배제하거나, 이를 통해 폭력적인 연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위한, 반차별 자치규약

1. 불필요한 신체접촉 줄이기

- 러브샷 강요하지 말아요.
- 상대방이 불편한 과한 노출 자제해요.
- 술이 많이 취한 친구는 동성끼리 챙겨요.

2. 성역할 구분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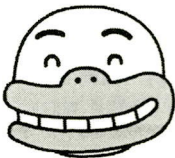
- 남자방/여자방은 따로 둥니다.
- 짐 옮기는 남자? 요리·청소는 여자? 남녀 역할 구분없이 서로 도와요.

3. 과도한 술자리 문화 조심하기

- '동국대의 명가수~' 지나친 장기자랑 강요하지 말아요.
- 몸이 불편한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인 '병신샷' 조심해요.
- 목소리 크게 내기 힘든 친구에게 'FM' 강요하지 말아요.
- 지나친 사발식은 자제해요.
- 누군가 곤란해질 수 있거나, 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게임은 자제해요.
-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언행에 조심해요.(별명 만들기 않기)
- 술게임방/대화방 만들어요.

4. 나이/학번에 따라 역할 구분하지 않기

- 새내기에게 '원샷' 강요하지 말아요.
- 선배 권력 이용해서 후배에게 일 미루지 말아요.
- 모르는 것 당연해요. 비난하지 말고 눈치주지 말고 함께 해결해요.



자치규약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자치규약의 의무 사항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시겠죠?
반차별 자치규약은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책임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불편한 점, 궁금한 것들은 과별 반차별 주체
혹은 단대 반차별 주체에게 문의해주세요.



자치규약에 대한 애매한 것들, 궁금한 것들, 여기에 물어봐!



Q. 자치규약은 남성을 잠정적인 가해자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A. 자치규약은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예방 하자는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야. 즉,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 온 일상생활을 성찰하고 재구성해보자는 거지. 분명 우리 사회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시선이 일상적으로 자리잡혀 있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이것이 남성을 잠정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건 오해야. 어느 한 성을 가해자로 규정해서 무조건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일상을 되돌아보고 함께 노력하자는 거지!

Q. 성폭력은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언어적인 유형도 모두 포함해.

A.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강간, 성추행 같이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행위들이 떠오르겠지? 하지만 자치규약에 나온 것처럼 성폭력은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인 성격을 띤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 못생겼어!’, 혹은 ‘너 너무 돼지 같아.’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며 넘어가기 힘들었거나 불쾌했다면 그건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야! 친한 친구 사이에도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특히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끼린 더욱 조심해야겠지?



Q.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는 1차 가해만큼 중요하지는 않지 않냐?

A. 무슨소리~!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나는 그 정도는 성폭력이 아닌 것 같아.’ ‘그러게 그 시간에 거기 왜 갔어?’ 라는 사회통념을 근거로 하는 말들이나 가해자와의 친분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가해에 해당돼. 이것은 피해자가 겪은 1차 가해보다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해야. 2차 가해는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성찰이 없었을 때 자신이 왜 가해를 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적정이나 안타까움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규정지으려는 주변인들의 태도야.



Q. 피해자의 옷차림과 늦은 귀가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는 거야.

A. 헐. 흔히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 하지만 옷차림과 늦은 귀가와 같은 임의적인 상황이나 공간 같은 요소들은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과 크게 관계가 없어.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구이며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에 기반한 '폭력'을 행사한거야. 성폭력이 아닌 이외의 사건을 생각해봐.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통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지.

그런데 꼭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이때 여성

은 성적 욕망이 남성보다 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된 존재라는 사회 통념이 더해져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의 왜곡된 관념이 피해자를 더욱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지. 그러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글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거!

Q. 다수가 즐기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성폭력을 문제제기하다니. 그 사람 감정이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A.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다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개인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예민하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문제인 거지. 개인의 불편함은 불편한 그 자체인 거고 그에 대한 원인이 있는거야. 이걸 두고 누군가가 '너의 감정이 예민해서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할 권리는 없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도,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도 없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그것을 두고 '공동체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걸까? 누군가 불편한 분위기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한다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게 아닐까?



Q. 분위기를 띄우려 한 말인데, 이걸 성폭력이라 하진 않겠지?

A. 술자리와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을 가진 공간에서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하는 말들! '여자가 따르는 술이 더 맛있다'거나, '원샷 안하는 애들은 술에 대한 예의가 없다'거나 '러브샷은 3단계부터' 등등.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이성애중심적인 발상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온다면 어느 누가 당당하게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화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성적인 말들이 필요하며,

이런 발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 과연 누구의 분위기를 위한 발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치규약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 됐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언제 친해지고 어떻게 술 마시고 무슨 게임을 하지?' 자치규약 때문에 분위기가 더 서먹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니? 모두가 즐거워야 할 사터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그 이상 서먹한 분위기가 또 있을거야 싶어. 공동체의 일치 때문에 성폭력이 숨겨져야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성폭력은 특별히 민감한 소수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꼭 성적인 농담을 해야지만 분위기가 즐거워지는 건 아니잖아.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즐겁게 할 수 있어. 지금부터 그것을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은 어떤 타입 인가요?

여기서
START!

① 당신은 얘기할 때
친근감은 없지만 존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
YES ②로
NO ④로

② 데이트 플랜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편이다.
YES ⑦로
NO ③로

④ 당신은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음담패설이나 연애담을
자주 하는 편이다.
YES ⑨로
NO ⑥로

⑤ 당신은 연인 이외의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면서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는
것은 싫다.
YES ⑩로
NO ⑧로

④ 당신은 야한
비디오나 영화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YES ④로
NO ⑤로

③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고 있을 때 멋진
이성이 지나가면
쳐다보는 편이다.
YES ⑩로
NO ③로

⑦ 당신은 육류나 맛이
진한 음식을 좋아한다.
YES ⑩로
NO ⑥로

⑧ 당신은 운동이나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YES ⑩로
NO ④로

⑨ 좋아하는 가수 뮤직
비디오 등은 빠르게
보고 보는 편이다.
YES ④로
NO ⑤로

⑩ 당신은 이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YES ⑩로
NO ⑥로

④ 상대방이 컴퓨터
게임 등 성인용 오락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다.
YES 진단C
NO ⑥로

⑩ 상대방과 키스를 나눈
적이 있다.
YES ⑩로
NO ⑥로

⑫ 상대방이랑 교제 중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손을 잡았다.
YES ⑩로
NO ④로

⑪ 상대방에게 스스로
스킨십을 요구한 적이
있다.
YES ⑩로
NO 진단B

⑮ 저녁 데이트 비용은
주로 남자가 부담하는
편이다.
YES ⑦로
NO 진단B

⑮ 상대방은 데이트가
끝날 때마다 그녀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YES 진단C
NO ⑩로

⑦ 상대방은 강한
톤으로 스킨십을
요구하는 편이다.
YES 진단A
NO 진단B

⑮ 상대방과 스킨십을
나누어도 두 사람의
관계에 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YES 진단D
NO 진단C

당신의 스킨십도는?

진단A 당신은 매우 정열적으로 스킨십을 나누기 원하는 타입! 항상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스킨십을 받아야만 사랑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진단B 당신은 스킨십에 별 관심이 없는 타입. 교제가 진전되어도 손을 잡는 것 외에 발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나 결코 사랑의 감정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듯.

진단C 당신은 이론적으로는 연애상식이 풍부해도 실천적인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사람이다. 단 기분이 고조되면 자신도 모르게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되므로 이것을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D 당신은 연애에서 스킨십보다는 플라토닉한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그쪽으로 유희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지적인 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교제를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